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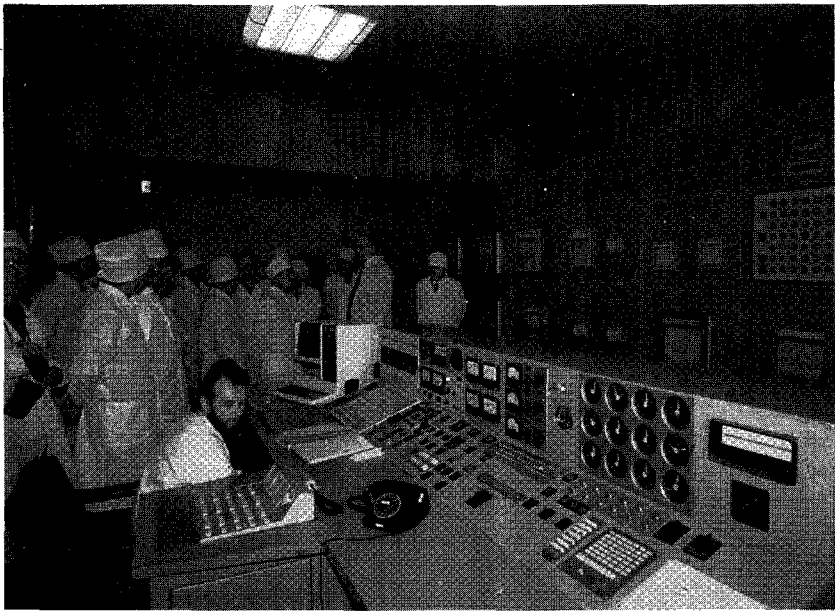
原子力분야의 技術協力 強化

兩國의 現況紹介 및 經驗交換의 계기마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및 한국원자력학회와 소련원자력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韓蘇원자력평화이용세미나가 지난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소련 모스크바에서 韓蘇 양국의 학자, 기술자 및 관련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이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및 한국원자력학회와 소련원자력학회 간에 韓蘇민간원자력협력각서가 조인된 후 처음 개최되는 세미나로서 양국의 현황소개와 경험의 교환 및 앞으로의 협력가능분야를 타진



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번 韓蘇원자력평화이용세미나에는 19명의 한국대표단(단장 金善昶)이 참가하였는데, 12월 2일 세미나 첫날 개회식에서는 소련측에서 Victor Orlov 소련원자력학회 전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Andrei Yu. Gagarinski 소련원자력학회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하였고, 한국대표단장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김선창 부회장의 개회인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열린 오전의 소련세션에서는 A.Yu. Gagarinski 박사가 「소련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한후 「소련 원자력발전소 운전현황과 문제점, 「소련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규제활동,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전략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계속된 오후세션에서는 「소련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연구현황, 「체르노빌-91, 「원자력발전과 국민의식」 등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이틀째의 한국세션에서는 오전에 김선창 한국원산 부회장의 「한국 원자력산업의 현황」이란 제목의 기초강연에 이어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성능, 「한국의 원자력 발전로 전략, 「한국에서의 원자력 규제활동」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계속된 오후세션에서는 「한국의 핵연료 현황,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및 국제기술협력, 「한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한국에서의 PA활동 현황과 국민의식」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韓蘇 원자력계 인사들은 각각의 주제발표가 끝난후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양국의 상호 관심도를 엿볼 수가 있었다.

세미나를 마친 한국대표단은 12월 4일 Kurchatov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Tokamak 핵융합장치를 돌아보고 오후에는 Electrostal에 있는 핵연료제조공장에 들러 핵연료제조공정과 현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어 12월 5일에는 Obninsk에 위치한 물리연구소(PhEI)를 방문, 고속중수로 임계실험장치와 핫셀 등을 돌아보았는데, 이 연구소내에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Obninsk 원전이 자리잡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12월 6일에는 소련이 자랑하는 VVER-1,000형인 Kalinin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로와 다른 노형의 발전소를 실제로 보고 지식을 넓힐 수가 있었다.

제1회 韓蘇원자력평화이용세미나는 양국의 현황과 경험에 대해 상호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에 이어 관련 연구기관과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는 등 韓蘇 양국간의 원자력에 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